

계모임 위장·할부 유도 등 고도화된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노인·중장년층 피해신고 급증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1.6% ↑
금융상품 투자 빙자 업체 늘어

원금보장에 평생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중장년층을 노리고 강남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당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 현황〉 /금융감독원

구분	가상통화 관련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사업	제조·판매사업	합계	
2019년	개수(개)	92	47	2	45	186
	비중(%)	49.5	25.3	1.1	24.2	100.0
2020년	개수(개)	20	29	4	24	77
	비중(%)	26.0	37.7	5.2	31.2	100.0
비중 증감 (%p)		△23.5	12.4	4.1	7.0	-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전년 49.5%보다 낮아졌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

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이나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

실제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

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B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

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에는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 잠적했다”며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新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비금융사업 진출

‘새마을금고 비전 2025’ 선포
3부문 12대 전략, 세부 실행 과제
도시-농촌간 연계 상생경영 도모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선포했다.

새마을금고는 23일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MG ▲혁신하는 디지털 MG ▲지역사회와 행복한 MG 3부문에서 12대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도약의 MG’를 위해 새마을금고 신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

비금융사업에 진출한다. 또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간 연계사업을 통한 상생경영을 도모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MG를 위해선 모바일 전자화환 등 디지털 페이먼트를 강화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금융환경을

구축한다. 태블릿 브랜지를 통한 회원 편의 서비스와 회원 상담을 위한 챗봇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행복한 MG를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메세나 사업과 MG역사관 건립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또 새마을금고의 해외 설립을 확대해 금융한류를 선도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전국 2000만 회원이며,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국민 모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PB특화점에 토지보상상담센터

우리은행은 PB특화점포인 TCE(Two Chairs Exclusive)강남센터, 대치·청담·가산·잠실 TCP(Two Chairs Premium)센터에 토지보상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보상상담센터는 다음달부터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서 시작하는 토지보상 협의양도에 맞춰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 절세 관련 세무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에 대한 금융투자 설계 및 부동산 매입 등 재투자자를 위한 자문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TCE강남센터와 TCP잠실센터에는 투자물건 검색 및 실거래가, 임대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열람 시스템이 구축되어 고객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억원 이상 토지보상금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고



객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절세 목적으로 채권 보상을 선택하는 고객을 위해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연계를 통해 채권할인 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대표 PB특화점에서 토지보상 고객을 위한 절세 및 부동산, 금융 투자 맞춤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맞춤형 전문 컨설팅이 고객의 자산증대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NH농협銀, 고객 맞춤 인터넷뱅킹 탈바꿈

거래시간 단축, 카드서비스 제공
외국인·고령층 디지털 금융 지원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23일 고객제안과 애플마켓 리뷰 등 고객의 견을 수렴해 NH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뱅킹의 계좌조회 화면에서는 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은행의 계좌도 목록과 잔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체거래는 한 단계에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도록 단순화해 거래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고객맞춤 서비스를 위해 앱에 로그인하면 예적금 만기, 내가 받은 우대혜택 등 개인화된 금융정보를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며, 농협카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에서 카드 승인내역, 이용대금명세 조회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해졌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과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을 위해 9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bankin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글로벌모드’는 첫 화면에 고객이 지정한 3개 통화의 매입·매도환율을 보여주고, 해외송금과 환전 등 주사용 기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했다.

또 고령층을 위해 고객이 ‘큰글모드’ 이용을 설정하면 스마트뱅킹 초기화면부터 조화·이체 등 주요 기능들을 큰글씨와 단순화된 항목으로 구성된 전용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뱅킹과 별개로 모바일웹으로 제공하는 ‘모바일웹뱅킹’은 로그인할 때 필수였던 별도 앱을 통한 인증절차를 제거하고,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상품가입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하나은행이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BIDV지분 투자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이지(Hana EZ)’에서 제공된다.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해외 송금 필수 조건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도 은행 방문 없이 ‘Hana EZ’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고 송금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동(VND)통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 운영 중이나, 수취 계좌가 없어도 베트남 BIDV 영업점에서 현지통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² 브릿지(Bridge) : 인천’(신한스퀘어브릿지) 1기 멤버십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신한금융, K유니콘·스타트업 육성 ‘첫삽’

‘S² 브릿지:인천’ 1기 멤버십 선발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² 브릿지(Bridge) : 인천’(신한스퀘어브릿지) 1기 멤버십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한 트리플(Triple)-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 크로스 컨트리 플랜(Korea Cross Country Plan)’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 중이며, 대표 브랜드인 ‘S² 브릿지’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 보육, 투자,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